

광산구의회, '장록교' 2차로 축소 계획 제동

'설계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영산강유역청·국토부에 전달 예정 KTX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6차선 확장 도시계획 수립된 상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는 송정동와 평등을 잇는 '장록교'를 놓고 광산구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록교'가 향후 조성될 KTX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상태인데도 2차선 규모로 축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중인 장록교를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2차선 규모로 재가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록교'는 광주송정역과 향후 조성될 KTX 투자선도지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다만 지난해 광주시의 지정고시에 제외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치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황룡강 송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포함하고 2차선 규모로 재가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광산구의회는 '향후 투자선도지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인구 유동성, 교통량 증가, 경제적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의회는 특히 "성공적인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에 따른 35m 이상의 교량폭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40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이와 별도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광산구의회는 결국 지난 15일 박현석 의원을 비롯한 김명수, 양만주, 조영민, 공병철 의원이 '장록교 재가설 설계변경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광주시와 국토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산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록교가 2차선 규모로 재가설 될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당초 광주시가 계획했던 투자선도지구의 지역생활 성장거점 육성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51번째 광산아트플러스 송영학 평면작품 30점 전시



'위대한 탄생' 전시 작품

광주 광산구는 "지난 19일부터 소촌아트팩토리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전통민화를 소재로 '탄생'의 의미를 재해석한 '위대한 탄생'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아트플러스 51번째 전시로,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호랑이를 주제로 작업하는 송영학 작가의 평면작품 30점을 선보이고 있다.
송영학 작가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고관대작들이나 양반층이 호랑이 세화를 연하장처럼 주고받았다"며 "지배계층의 허세를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까치호랑이 등의 작품을 많은 분이 감상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8월 7일까지 열리며(월요일 휴관)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87)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어룡신협, 직원 성과금 돈잔치·부동산 평가액 부풀리기 사실로

중앙회 감사팀 부정행위 10건 적발...당사자에 의견서 제출 요구 성과금 명목 지급액 규정위반...부동산 감정가보다 비싸게 매입

광주 어룡신협이 코로나19 등으로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직원들은 성과금 명목으로 수익원을 나눠 갖는 '돈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반축을 사고 있다.
업무용부동산을 감정평가 금액보다 수십여억원이나 비싼 금액에 매입하는 등 특정 간부 직원이 주도한 각종 비리행위도 동시에 적발됐다.
20일 어룡신협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어룡신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 10건의 비위행위 등을 적발하고, 어룡신협 이사 및 감사와 전무 등 행위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의견서 제출 요구는 어룡신협 임직원 가운데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행위 당사자에게 징계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이번 신협중앙회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광주일보(2022년 6월 20일자 10면, 23일자 12면)에서 2차례에 걸쳐 지적한 내용과 함께 추가로 새로

운 비리행위까지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어룡신협은 최근 2년동안 9차례에 걸쳐 직원 30여명에게 9억 8119만원을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직원별 목표 대비 성과 달성에 대한 연간 평가없이 내부결재만을 근거로 지급해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수완동지점 건물을 매입하면서도 A감정평가법인의 56억원이라는 감정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숨긴 채 21억원이나 비싼 금액인 77억원에 매입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며, 어룡신협 K 전무가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협중앙회 감사팀은 K전무가 셀프 기안을 통한 270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K전무는 결국 지급받은

2700만원을 뒤통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감사팀은 이번에 적발한 1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개인별 의견서를 제출 받은 후 조만간 어룡신협 이사회측에 징계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어룡신협 조합원들은 이번 중앙회 감사팀의 지적 사항에 대해 "K전무가 이사회 선거에 개입해 무투표 당선시킨 80대 이사회장을 앞세워 어룡신협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전무는 "현재 중앙회 보안감사팀이 파견돼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최근 관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산업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산업현장 찾아 캠페인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선운2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쿨도시, 쿨스카프 등을 배부하며 산업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안내했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평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12일부터 관내 산업현장을 다

니며 산업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8월까지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거리 홍보와 산업현장 안전관리담당자 대상 간담회 및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현장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와 실천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행복&희망 소통엽서 쓰기' 첨단1동 주민자치회 공모전

광주 광산구 첨단1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상민)는 "25일까지 지역 어린이들이 엽서를 통해 이웃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희망' 듬뿍 소통엽서 쓰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첨단1동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마을의제를 실현한 것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관내 초등학교 3곳(첨단, 미산, 정암)에 '토담(토닥토닥 쓰담쓰담) 우체통'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눈높이로 작성한 소통엽서를 모은다.
손 글씨와 그림으로 이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어린이들의 엽서는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수작은 10월 열리는 첨단1동 마을축제에서 전시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